

先進國圈을 向한



金 允 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長

光復 30 周年記念在歐科學

親愛하는 國內外 科學技術者여러분!

그리고 內外 貴賓여러분! 오늘 이자리에 尊敬하는 崔亨燮科學技術處 長官을 모시고 在歐科學技術者 여러분을 招請하여 光復 30 周年記念 科學技術 綜合심포지움을 開催하게 된 것을 無限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 科學技術綜合심포지움을 開催하는데 많은 勞苦를 배프신 在獨科學技術者協會 여러분과 異域萬里의 먼 距離에도 不拘하고 祖國의 科學技術 發展에 參與하고자 歐羅巴 各國에서 여기에 모이신 科學技術者여러분의 母國訪問을 衷心으로 歡迎합니다

只今 우리는 光復30周年을 맞이하고 있으며 祖國近代化의 民族의 大業을 完成시키는데 總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祖國의 中興을 爲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한 科學立國에 迫車를 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人類의 歷史에 있어서 커다란 轉換期였다고 말 할수 있는 時期는 몇 世期에 한번쯤 있을 程度로 貴한 것입니다.

이것은 傳統있는 民族國家들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民族의 境遇도 例外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貴하고 값진 歷史의인 機會를 우리가 只今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第1次, 第2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을 通하여 產業構造의 面貌를 一新 하였으며 이제는 第3次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中進國圈에서 先進國圈을 向한 高度經濟成長을 爲하여 集約된 우리의 슬기와 創意를 總動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80年代 初에는 一人當 國民所得 壹千弗, 輸出 百億弗을 成就할 目標이며 이 目標 達成을 爲한 主要手段으로 重化學工業 育成에 盡力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國家의 要請에 따라 意慾의으로 持續性있는 努力을 쏟아 왔으나 그때마다 痛感한 것은 새로운 科學知識과 技術革新의 必要性이었다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革新을 期待

技術者招請綜合심포지움

더우기 80年代를 向한 鐵鋼工業, 石油化學工業, 造船工業, 機械金屬工業 및 電氣電子工業等 重化學工業等이 그 規模 또는 技術水準面에서 從來의 範圍를 훨씬 벗어나고 있어 그 要求度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國內外의 우리 科學技術者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最新科學技術과 產業技術에 關한 眞摯한 討議와 知識의 相互交換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最新의 科學技術情報를 交換하고 相互紐帶를 強化하여 祖國의 繁榮에 寄與할 수 있는 좋은 機會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들은 이미 이와같은 모임을 在美科學技術者協會와 가진 바 있으며 그때의 成果는 매우 至大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在歐科學技術者 여러분과 共同으로 갖게 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우리나라가 當面하고 있는 金屬工業, 機械工業, 科學技術教育制度等 各分野에 걸쳐 充分한 知識의 交換과 眞摯한 討議를 거쳐 現代科學技術의 革新潮流를 익히고 이를 活用할 수 있는 成果를 期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產業視察을 통하여 祖國의 現實을 폭 넓게 把握하고 우리가 지금 展開하고 있는 全國民의 科學化운동 技術革新, 資源確保等 여러가지 懸案問題에 對한 最善의 發展策이 模索되는 契機가 되도록 舍心努力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科學技術綜合심포지움이 우리나라 科學技術暢達振興과 產業發展에 새로운 轉機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積極의인協助가 있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리면서 이 모임을 爲하여 直接, 間接으로 聲援해 주신 여러機關과 運營委員會 委員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1975年 4月 1日